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사진 오른쪽)이 지난 1일 전북을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더 이상 전북 소외 없어야”

민주 김윤덕 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와 전북 민심잡기… “미래발전전략 실현” 자신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일 경선후보로는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 지사 일행에는 이재명 캠프의 조직과 전북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을 비롯한 대변인 전용기 의원(비례)과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읍), 이수진 의원(동작 등)이 함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주에 위치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방문해 신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한 후, 민주당 전북도당 핵심당원 간담회를 가졌다.

무엇보다 이 지사는 전북도의회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 세력의 본산은 전라도다. 전라도가 없다면 민주당은 건재하기 어렵다”며 전북 도민들의 자

부심을 고취하는 발언을 연이어 꺼내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에는 전북을 포함한 전라도가 국가 식량을 책임지는 곡창지대였지만 세월이 바뀌어 태양광과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전라기지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전북이 탄소산업과 새민중 중심의 신재생 사업을 통해 제도약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일정을 함께한 캠프 조직본부장 김윤덕 의원은 “이번 전북 방문은 민주당 80만 권리당원의 30%가 넘는 25만~30만명이 호남에 집중돼 있다”며 “특히, 수도권 다음으로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의 선택이 경선 승부의 결정적 역할을 해왔던 만큼, 지지세 확산에 공을 들여 10월로 연기된 경선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지지율을 끌어

올리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역대선거 과정이 그러했듯 호남은 여전히 본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경선을 바라본다”며 “민주당의 최종 후보가 본선 경쟁력을 갖추 때까지 끊임없이 담금질하는 과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 유일 이재명 지사 지지 이유를 설명하며, “그동안 전북의 선택은 개혁적 민주당 수립이라는 대명제를 바탕에 두고 전략적으로 이길 수 있는 후보와 호흡해 왔지만, 이제는 낙후된 전북의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해 판단해야 한다”며 “결단력과 실행력 강한 이 지사와 함께하면, 전북의 미래발전전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자신감을 보였다. /유호성 기자

송기인 신부, 이낙연 전 대표 후원회장 맡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부산·경남 지역 민주화운동의 대부 송기인(88) 신부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는다.

이낙연 캠프는 2일 “송 신부가 이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본격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친노·친문 및 PK 지역을 겨냥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캠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특별한 친분을 맺고 있는 송 신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정부 출범 후에도 조언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최근에 재판수감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는 대법원에 신청을 바라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1972년 사제서품을 받은 송 신부는 정의구현사제단에 참여해 반독재 투쟁을 해왔다. 이후 송 신부는 부산민주행동기법사협의회 이사장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역사정산 작업과 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송 신부는 2005년 12월 사목직에서 은퇴한 뒤 현재 경남 삼랑진읍에서 조선 최초의 천주교 순교자인 김범우 토마스의 묘를 관리하며 지내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영남권 진보 원로인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해 영남 민심 공략에 나선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선 패배부터 이 전 대표 후원회장을 맡아 왔다. /뉴시스

“1일1망언”·“불량 대선후보” 민주당, ‘부정식품’ 윤석열 맹공

與 대선후보들도 맹폭… “독약은 약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부정식품’ 발언으로 또다시 구설수에 오른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주 12시간 근무’에 이은 잇따른 설화를 부각시키며 윤 전 총장을 망언 프레임에 가두기 위해 총공세를 펴는 모습이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총장을 겨냥해 “이 분이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을 싸게 먹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조차도 부정식품을 사회의 악으로 규정하고 단속했는데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윤 후보가 그런지 부정식품에 대해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비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좋은 식품,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정치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은 “국민생명을 좌우하는 식품안전 기준을 불필요한 규제,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인식하는 천박함에 깜짝 놀랐다”며 “윤 전 총장이 자랑스럽게 말한 공권력 발동을 제어했다는 것은 검사 시절 국민 건강과 생명을 도의시켰다는 자백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강 최고위원은 “윤 후보는 영화 실국영차에서 꼬리칸에 배급된 단백질 양갱이 용인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냐”며 “대선후보 윤 전 총장은 미래 비전은 없고 국민 앞에 오만한 불량 대선후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을 강하게 성토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독약은 약이 아니다”라며 “C-8의 국력을 인정받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식품 그 아래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썼다.

이 지사는 “없는 사람들은 ‘주 12시간 노동’ 하면서 ‘부정식품’이나 그 아래 것을 먹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량후보라는 불량인식에 경악한다. 가난하면 대중 먹어도 된다는 발상”이라며 “가난한 국민이 불량식품을 먹고 살지 않도록 불보는 것이 국가의 의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민을 차별하는 불량한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9일 매일 경제 인터넷에서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시장경제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라며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만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관한 일화를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해결해야 할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과 백신 접종과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만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찾아내고, 빠르게 치료하는’ K-방역의 우수성은 현장에서

주차장 무료 개방시 시설비 지원

최영규 도의원, 상업·주거밀집지 주차난 해소 조례 제정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제383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도내 주거·상업 밀집 지역 또는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했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먼저, 지원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해 지원하며, 10면 이상, 1년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사업은 무료 개방에 따른 육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비,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비,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등이며, 사업보조금은 1개소당 2,0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그 밖에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결정 방법과 보조금의 반환, 방치처분에 대한 조치,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했다.

또한, 무료 개방주차장의 경우, 반

드시 주차장 표지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 책임있는 관리와 주민의 편리한 이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최영규 의원은 “도내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1층 상가의 출입구를 막거나 보행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 주차문제는 삶의 질, 정주여건, 상가 활성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문제다”면서 “도시계획단계에서 놓쳤다면 행정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전북도가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호성 기자

“지역 현안,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 이원택 의원, 김제시장·부안 부군수와 기재부 방문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등 현안 반영 요청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2022년도 전북도·김제시·부안군 예산안 확보를 위해 박준배 김제시장 김종택 부안 부군수와 함께,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했다.

이 의원은 안동진 기획재정부 2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박정환 예산총괄과장 등 10여명

의 실·과장들을 만나 2022년도 전북도, 김제시, 부안군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기재부 심의 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날 이 의원은 ▲동물용 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신규), ▲‘제2회 세계스카우트잰버리’ 개최 예산 등 전북 현안 5건 예산 반영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박준배 김제시장과 김종택 부안 부군수와 함께 기획재정부를 찾아 지역 현안사업의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또한 ▲새민중 신항만-김제-전북혁신도시 구간 연결도로(지방도 702호선 등) 국도승격 및 확장, ▲김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등 김제시 현안 6건 예산 반영 요청했다.

이어 ▲부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 시민행령의 전담 건립사업 등 부안군 현안 7건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염기두 해양수산부 차관 및 실·과장들을 만나 내년 예산 및 주요현안을 협의했다.

특히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현안축사 매입, ▲부안군 사회적 농업 성장지원센터 설립, ▲새민중 수산농지 반영 건의 등 전북·김제·부안지역의 농림, 해양 관련 예산 및 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2022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애써주시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진 부안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위원으로서 전북, 김제, 부안 지역현안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성 기자

“추석 연휴 전까지 ‘1차 접종’ 목표 달성”

문 대통령, 3600만명 대상 “8~9월 접종 백신 물량 차질없이 도입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추석 연휴 전까지 3600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3일)이면 1차 접종이 2000만 명을 넘게 된다. 9월 까지 3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친다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목표를 앞당겨 추석 연휴 전까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백신이 해결책이 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지금 분명한 것은, 백신이 감염을 막아 주지 못하더라도 위중증률과 치명률을 크게 줄여 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과 백신 접종과 적절한 방역 조치를 병행해 나가야만 코로나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방역과 의료 체계는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찾아내고, 빠르게 치료하는’ K-방역의 우수성은 현장에서

서 심분 발휘되고 있다”며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백신 접종도 완료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그 토대 위에서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고 상황을 하무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백신 접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8, 9월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은 차질 없이 도입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40대의 백신 사전 예약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배규모로 단기간에 예약을 마치고 예약시스템을 정비하고, 10부제 예약으로 불편을 줄이면서 공평한 접종 기회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더 많이 예약할수록 접종의 속도를 더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예약과 접종에 적극적으로, 또한 질서 있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보훈처·SKT, 광복절 앞두고 독립운동 통화연결 영상 제공



국가보훈처와 에스케이이텔레콤, 독립기념관을 제 76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공동기획·제작한 독립운동 관련 통화연결 영상(V 콜러링)을 2일부터 제공한다.

통화연결 영상이란 통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미리 설정해 둔 영상을 보여주는 서비스다.

이번에 제작된 독립운동 관련 5편은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편, 대한독립만세 광복의 의미 전달 편, 김구 선생의 명언 등 독립운동가 메시지 3편 등이다.

보훈처와 에스케이이텔레콤은 영상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해 인증한 참여자 등을 추첨해 독립운동 사적지 상징물이 새겨진 여행용 가방을 증정한다.

광기철 보훈처장은 “어린이와 학생 등 미래세대들이 통화연결 영상을 통해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기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